

670년대 이후 고구려 유민과 신라·당 관계*

김강훈**

-
- I. 머리말
 - II. 673년 후반 고구려 유민과 나당전쟁
 - III. 674년 나당전쟁의 소강과 고구려 고지의 정세
 - IV. 보덕국(674~683)의 존망과 신라당 관계
 - V. 맺음말
-

【국문초록】

서북한 일대에서 활동한 고구려 부흥군은 673년 윤5월 호로하 서쪽에서 당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황해도 일대에서 부흥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은 근거지를 상실하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 신라 영역인 영서 지역 및 경기 서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신라는 이들을 대양성, 동자성 등에 배치하여 군사적으로 활용하였다. 673년 후반 신라와 당의 전투는 신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 유민을 지금의 익산 지역인 금마저 일대로 집단 안치하였다.

674년은 나당전쟁의 소강기였다. 당시 안동도호부는 요동성에서 평양성으로 다시 옮겨져 있었다. 674년 2월 안동도호는 고간에서 굴돌전으로 교체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안동부도호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670~673년 서북한 일대에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당군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육효빈신도비」를 통하여 확인된다. 고구려 유민도 전염병을 비켜 갈 수 없었다. 안동도호부 수뇌부의 일시적 부재와 전염병의 유행은 674년에 나당전쟁이 소강기를 맞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신라가 고구려 유민 집단을 받아들이고 금마저에 집단 안치한 것은 당이 원정군을 신라에 파견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에 신라는 674년 9월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여 고구려 유민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희석시켜 당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다. 한편 670년대 후반 요동 지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사동중학교 교사

역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였다. 신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승과 신라 왕실 여성의 혼인을 추진하여, 고구려 유민을 회유하는 동시에 신라 체제 내로 흡수하고자 하였다.

결국 신라는 집권 체제 구축을 위해 보덕국을 해체하였다. 이때 내부한 지 10년이 된 고구려 유민은 완전한 신라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였다. 이에 683년 안승은 신라 관등과 김씨 성을 사여 받고 경주로 이거하게 되었다. 금마저의 고구려 유민은 보덕국 해체에 따른 심리적 상실감과 부세 면제 혜택 종료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684년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주제어 : 고구려 유민, 고구려 고지, 나당전쟁, 안승, 보덕국

I. 머리말

신라인들은 668년 9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하면서 마침내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 한 기나긴 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인식하였다.¹⁾ 그러나 신라-당 관계는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원활하지 못하였고,²⁾ 신라와 맞닿아 있는 서북한(西北韓) 일대는 당의 지배 체제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 유민의 저항으로 불안정하였다.³⁾ 신라와 당은 전후 영토 처리와 국제 질서에 대한 구상이 달랐기에,⁴⁾ 고구려 멸망은 전쟁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전쟁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인에게 보장왕의 항복과 평양성 함락은 곧 고구려의 멸망으로 인식되었다.⁵⁾ 당의 지배 정책에 협조 내지 순응하는 고구려 유민도 있었지만, 그들과 달리 당의 지배에서 이탈하거나 저항하는 유민들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영토·인민·자원의 획득 등을 목표로 하거나 상대국을 멸망시키려는 전쟁이 아닌 고구려 부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검모잠은 한성(漢城)에서 안승을 국왕으로 세우며 일시적이거나 고구려 부흥을 이루었다. 당은 고간과 이근행을 각각 동주도행군총관, 연산도행군총관에 임명하여 신속히 대응하였

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遂破平壤 克成大功 於此新羅 兵士竝云 自征伐已經九年 人力殫盡 終始平兩國 累代長望 今日乃成.”

2) 이와 관련하여, 당대 묘지명을 활용해 660년 사비성 함락 후 당군이 신라를 침공하려고 계획하였음을 밝힌 연구가 주목된다(이민수, 2019).

3) 669년 2월 안승이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다는 기록(『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총장 2년 2월)은 사실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의 지배 체제에 불만을 가진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로 유입되어 간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4) 신라는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데 반해, 당은 백제·고구려 고지(故地)뿐만 아니라 신라 영역에 대해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5) 검모잠이 신라에 보내 애고문(哀告文)(『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6월)에는 고구려를 ‘멸국(滅國)’으로 지칭하며 ‘우리나라의 선왕이 도를 잃어 멸망하였다[我國先王以失道見滅]’고 하였다.

다.⁶⁾ 검모잠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안승을 왕으로 세웠음을 알리고 신라의 번병(藩屏)이 되기를 맹세하며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신라는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며 지원을 약속하였다.⁷⁾ 이제까지 서북한 일대에서 고구려군과 나당연합군이 대결하던 상황이 종결되고, 고구려 부흥세력과 신라의 연합군이 당군과 충돌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서북한 지역의 고구려 부흥세력은 673년 윤5월 호로하(瓠蘆河) 서쪽에서 당군에게 크게 패하였고, 근거지를 상실한 고구려 유민은 신라로 이주하였다.⁸⁾ 그러나 당군의 군사행동은 종결되지 않았고 우잠성(牛岑城), 대양성(大楊城), 동자성(童子城)을 공격하는 등 673년 말까지 이어졌다.⁹⁾

지금까지 이 전투에 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기년을 조정하여 672년 및 675년에 일어난 전투로 이해하기도 하고,¹⁰⁾ 당군이 고구려 유민을 쫓아 신라 영내로 진입했다가 패배하자, 우잠성에서 고구려 유민이 재차 봉기했다고 보기도 한다.¹¹⁾ 최근에는 당군이 한강 하류 유역에서 후퇴하며 발생한 전투로 보는 연구¹²⁾, 당군이 신라로 진격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예성강 유역, 한강 하류, 북한강 상류 등 세 방면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¹³⁾가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고구려 유민의 신라 이주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674년 2월 당 고종은 유인케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여 대대적인 신라 원정을 추진하였다.¹⁴⁾ 그런데 한반도에서 당군의 군사행동은 675년 2월에서야 확인된다. 이를 나당전쟁의 소강기로 파악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서역의 정세,¹⁵⁾ 당군의 원정 준비,¹⁶⁾ 당 조정의 권력 구도¹⁷⁾ 등이 제기되었다.¹⁸⁾ 각 견해가 일정 부분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고구려 고지(故地)의 정세에 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헌에는 674년 서북한 지역의 정세를 분석할 기록이 부족하지만, 당대 금석문에서 당시 고구려 고지의 상황을 반영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673~674년 신라로 들어간 고구려 유민은 지금의 익산 지역인 금마저 일대에 집단 안치되

6) 『신당서』 권220, 열전145,동이 고려 “大長鉗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偁東州道 李謹行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6월, 7월.

8)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함형 4년 윤5월 “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李謹行大破高麗叛者於瓠蘆河之西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겨울.

10) 池內宏, 1930, 82~85쪽, 111~116쪽.

11) 古畑徹, 1983, 64쪽 ; 井上直樹, 2016, 117~118쪽.

12) 김병희, 2021, 94~98쪽.

13) 여호규, 2022, 89쪽.

14) 『신당서』 권3, 본기3, 고종 상원 원년 2월 임오 “劉仁軌爲雞林道行軍大總管 以伐新羅.”

15) 서영교, 2006, 190~194쪽.

16) 이상훈, 2012, 194~197쪽.

17) 曹凌, 2019, 79~85쪽.

18) 拜根興, 2015, 162~166쪽에서도 계림도행군의 출정이 늦추어진 배경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었다. 이를 대체로 보덕국(報德國)이라 한다.¹⁹⁾ 신라가 보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치 및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신라의 입장에서 연구되었다. 하지만 신라 내 고구려 유민의 존재가 나당전쟁의 주요한 명분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²⁰⁾ 고구려 유민-당, 고구려 유민-신라, 신라-당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신라가 7세기 중반부터 당제(唐制)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²¹⁾ 당의 내부(內附) 이민족 규정도 검토의 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덕국의 존재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보덕국의 해체 과정과 보덕성민의 반란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II. 673년 후반 고구려 유민과 나당전쟁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를 도모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은 이에 맞서 각 지역에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를 책임지고 있던 안동도호 설인귀뿐만 아니라 당 고종 및 중앙 관료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669년 4월 고구려 유민에 대한 대규모 사민 조치를 내리며 그 배경으로 이반자(離叛者)를 지목하거나,²²⁾ 669년 8월 당 고종의 순행을 만류하며 부여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거론한²³⁾ 바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 조정이 가장 중대하게 인식한 고구려 유민의 저항은 검모잠의 거병이었다. 당은 고간과 이근행을 총관에 임명하며 2개의 행군을 파견하였고 양방을 보내 고구려 유민을 위무하게 하였다.²⁴⁾ 전에 없던 조치를 내린 데서, 당 조정이 검모잠의 부흥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것은 당시까지 일어났던 고구려 유민의 저항과 달리,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 고구려왕 안승은 고구려 멸망이라는 전

19) ‘보덕국’은 신라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報德王)으로 책봉한 데서 비롯된 명칭인데, 사료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 용어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필자는 ‘보덕국’을 대체할 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덕국’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보덕국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村上四男, 1966 ; 金壽泰, 1994 ; 임기환, 2003 ; 정선여, 2010 ; 조법중, 2015 ; 정원주, 2019 등이 있다.

20) 植田喜兵成智, 2022 ; 신은이, 2023.

21) 한준수, 2012.

22)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고종 충장 2년 4월 “高麗之民多離叛者 敕徙高麗戶三萬八千二百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23) 『당회요』 권27, 행행 “總章二年八月一日 詔以十月幸涼州 … 詳刑大夫來公敏曰 陛下巡幸涼州 遐宣王略 求之故實 未虧令典 但隨時度事 臣下竊有所疑 既是明制施行 所以不敢塵黷 奉勅顧問 敢不盡言 近高麗雖平 扶餘尚梗 … .” 이 기록에 대한 분석은 김강훈, 2017, 42-59쪽 참조.

24)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大長鉞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俚東州道 李謹行 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餘.”

25) 김수진, 2020, 7쪽.

과(戰果)를 부정하는 동시에 별개로 진행되고 있던 유민의 저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검모잡과 안승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은 결국 당군에 의해 좌절되었다. 결전으로 언급되는 것이 673년 윤5월 호로하 서쪽에서의 전투였다(이하 호로하 서쪽 전투).²⁶⁾ 고구려 부흥군은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과 싸워 큰 피해를 입으며 패하였고, 이후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로 이주하였다. 『신당서』 고려열전에서는 이를 두고 ‘그리하여 4년 만에 평정하였다[凡四年乃平]’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 조정이 고구려 유민의 저항을 최종 진압하였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간과 이근행이 이끈 당 행군은 어떻게 되었을까? 행군은 대외 원정과 같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임시로 조직된 군단이기때문에, 본래 임무가 종결되면 본국으로 귀환하고 행군은 해체해야 한다.²⁷⁾ 그런데 호로하 서쪽 전투 후에도 당군의 군사행동이 『삼국사기』에서 확인된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A. ① (9월) 왕이 대아찬 철천(徹川) 등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다. ② 당병(唐兵)이 말갈·거란병과 함께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왔는데, 무릇 아홉 번 싸워 우리 군사가 이겨 2천여 명의 목을 베었고 당병 중 호로(靺廝)와 왕봉(王逢) 두 강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었다. ③ 겨울, ①당병이 고구려 우잠성(牛岑城)을 공격하여 항복시켰다. ④거란·말갈병은 대양성(大楊城)과 동자성(童子城)을 공격하여 멸하였다.²⁸⁾

우선 673년 9월 문무왕은 대아찬 철천 등에게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도록 하였다(A-①). 서해 방면에서 당 수군의 공격 내지 군수품 운송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는 신라가 당군의 침입을 예측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전투가 일어난 사실은 A-②에서 확인된다. 당병이 말갈·거란병과 함께 북쪽 변경을 침입하였으나, 9번의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였다. 이 전투를 중국 사료의 호로하 서쪽 전투와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⁹⁾ 그러나 당군의 구성, 전장, 전투의 시기와 승패가 다르기에, 이 견해를 따르기에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다. 당군이 호로하를 넘어 신라로 망명하

26) 『구당서』 권5, 본기5, 고종 하 함형 4년 윤5월 정묘 “燕山道總管李謹行破高麗叛黨於靺廝河之西 高麗平壤餘衆遁入新羅.” ; 『책부원귀』 권358, 장수부19, 입공10 “李謹行爲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 咸亨四年 大破高麗叛徒於靺廝河之西 俘獲數千人 自是平壤餘衆 走投新羅.” ; 『자치통감』 권202, 당기17, 고종 함형 4년 윤5월 “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李謹行大破高麗叛者於靺廝河之西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전장으로 기록된 ‘호로하 서쪽’은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의 개성 방면으로 추정하거나(池內宏, 1930, 81쪽), 연천 무등리~호로그루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임용한, 2013, 125쪽) 등이 있다.

27) 『신당서』 권50, 지40, 병 “若四方有事 則命將以出 事解輒罷 兵散于府 將歸于朝.”

2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九月) 王遣大阿浪徹川等 領兵船一百艘 鎮西海 唐兵與靺鞨契丹兵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靺廝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冬 唐兵攻高句麗牛岑城 降之 契丹靺鞨兵攻大楊城童子城 滅之.”

29) 盧泰敦, 1997, 13쪽.

는 고구려 유민을 추격하다가 일어난 전투³⁰⁾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③은 673년 겨울 당병이 고구려 우잠성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으며, 거란말갈병이 대양성, 동자성을 공격하여 멸하였다는 기록이다. 먼저 각 성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다. 우잠성은 신라 우봉군(牛峯郡)의 고구려 지명인 우잠군(牛岑郡)의 치소로 추정되며,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북한 황해북도 금천군 현내리)으로 비정된다.³¹⁾ 대양성은 한강입진강 하구 인근으로 추정하기도³²⁾ 하지만, 회양의 옛 지명인 고구려 대양관군(大陽管郡), 신라 대양군(大陽郡)을 근거로 회양으로 비정되고 있다.³³⁾ 구체적으로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하현리 일대(북한 강원도 금강군 현리)로 볼 수 있다.³⁴⁾ 동자성은 동성현(童城縣)의 고구려 지명인 동자홀현(童子忽縣)과 연결되기에³⁵⁾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일대로 비정된다.³⁶⁾



[그림 1] 우잠성, 대양성, 동자성의 위치와 자비령로

30) 古畑徹, 1983, 64쪽 ; 井上直樹, 2016, 117~118쪽.

31) 鄭求福 外, 1997, 235쪽, 256쪽.

32) 津田左右吉, 1913, 306쪽 ; 池内宏, 1930, 113쪽.

33) 『대동지지』 권15, 회양조에 A-③-㉠를 전제하고 대양성을 회양의 고려시기 지명인 장양(長楊)이라고 주석하였다. 『아방강역고』 말갈고에서도 A-③-㉠을 제시하며 대양성을 회양이라 주석하였다.

34) 鄭求福 外, 1997, 235쪽, 278쪽.

35) 津田左右吉, 1913, 306쪽 ; 池内宏, 1930, 113쪽.

36) 鄭求福 外, 1997, 235쪽, 245쪽. 동성현의 치소성을 현재 김포시 하성면의 동성산고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朴省炫, 2002, 152쪽). 한편 최근에 대양성·동자성 전투를 연속성을 지닌 하나의 작전으로 이해하면서, 동자성을 강원도 회양에 근접한 고성(高城) 지역에서 찾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윤경진, 2017, 265쪽). 두 전투가 동일한 작전 범주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공감이가 되나, 지명의 유사성만 보자면 김포 일대가 더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기존 견해와 같이 동자성을 김포로 비정하면서 당군이 한강 하류와 강원도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펼친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A-③ 기사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고구려 우잠성’이다. 비록 고구려 부흥세력이 호로하 서쪽 전투에서 패배하며 전세가 당군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전히 임진강 이북 지역에 고구려 부흥세력이 잔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양성과 동자성을 고구려 유민의 거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반면 신라성으로 보기도 한다. 대양성과 동자성을 고구려 유민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A-③의 ㉠과 ㉡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행동인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일찍이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A-③의 ㉠과 ㉡을 분리하여, ㉠은 672년에 발생한 전투로 이해하고, ㉡은 A-①·②와 함께 675년의 일로 파악하였다.³⁷⁾ 이는 『삼국사기』의 독자 기록보다 중국측 기록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나당전쟁에 관한 기록은 중국측 기록보다 『삼국사기』가 더 자세하며 정확하다고 평가받고 있기에³⁸⁾ 따르기 어렵다.

A-②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란말갈병은 독자적으로 활동한 세력이 아니라 당에 의해 동원된 번병(蕃兵)이었다.³⁹⁾ 나당전쟁기 거란말갈병 또는 말갈이 단독으로 전투를 벌이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군의 명령 내지 작전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A-③ 기사에서 당병과 거란말갈병은 동일한 전략 하에서 우잠성, 대양성, 동자성을 공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대양성과 동자성이 고구려 유민의 거점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령하는 기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라인들이 백제부흥세력 및 웅진도독부와 치른 전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신라인들은 백제 유민이나 웅진도독부가 점거하고 있는 성이나 지역의 점유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백제 유민의 지도자를 밝히는 경우이다.⁴⁰⁾ 다음으로 백제의 남은 적/무리[百濟餘賊/百濟殘賊/百濟殘衆] 등으로 지칭하는 사례이다.⁴¹⁾ 그리고 백제 ○○성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⁴²⁾ 이중 A-③과 유사한 사례로 다음 기록이 참고가 된다.

37) 池内宏, 1930, 82~85쪽, 111~116쪽.

38) 존씨재미슨, 1969. 최근 고구려 부흥운동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만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적지 않고 기년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중국 사서의 기록과 대응하면서도 내용이 더 상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구려 부흥운동 연구의 기본 자료는 신라본기의 기록이라고 하였다(임기환, 2024).

39) 서영교, 2006.

4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8월 “佐平正武聚衆庄豆尸原嶽 抄掠唐羅人.” ;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賊臣福信 起於江西 取集餘燼 圍逼府城 先破外柵 摠奪軍資 復攻府城 幾將陷沒 又於府城側近四處 作城圍守 於此 府城不得出入.” 등.

4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9월 “百濟餘賊入泗泚 謀掠生降人.” ;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원년 8월 “大王領諸將 至始飴谷停留 □使來告曰 百濟殘賊 據甕山城遮路 不可前 大王先遣使諭之 不服” 등.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6월 “遣將軍竹旨等 領兵踐百濟加林城禾.” ;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정월 “王遣將攻百濟古省城 克之.” 등.

B. 흡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을 쳐서 빼앗고, 700여 명을 목 베었다. 또 거물성과 사평성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덕안성을 공격하여 1,070명을 목 베었다.⁴³⁾

663년 2월 신라군은 백제부흥세력을 공격하여 거열성을 빼앗고 거물성과 사평성의 항복을 받아 냈으며 덕안성에서는 1,070명의 목을 베며 승리를 하였다. 신라군이 공격한 대상을 백제 거열성으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거물성, 사평성, 덕안성에 대해서는 점유 주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기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백제 ○○성’으로 기록하고 그 뒤에는 ‘백제’를 생략한 것이다.

이러한 필법을 고려한다면, 고구려 유민이 우잠성, 대양성, 동자성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A-③에서 먼저 기재되는 우잠성만 ‘고구려 우잠성’으로 표기하고, 대양성과 동자성은 ‘고구려’를 생략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대양성과 동자성이 신라의 영역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호로하 서쪽 전투 이후 고구려 유민들이 잇달아 신라로 도망갔다는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성을 거점으로 한 고구려 부흥세력의 세력권은 대체로 황해도 일대로 추정된다. 고구려 부흥군-신라군과 당군의 충돌 지점을 살펴보면, 당군은 주로 자비령로(평양-황주-서흥-평산-금천-개성-파주)를 남진 경로로 이용하였다고 생각된다.⁴⁴⁾ 당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을 빼앗기고 점차 세력권이 축소되던 와중에, 호로하 서쪽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임진강 유역의 주요 도강처는 당군이 통제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 유민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신라로 이주를 모색하였을 것이다.

먼저 황해도 동부 산간지대나 임진강 상류 지역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 중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북부 지역, 즉 영서지방 북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는 672년 우수주(牛首州)에 우수주삼천당, 우수주서, 우수주계당을 설치하면서, 우수주를 영서 지역과 영서로를 방어하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교두보로 삼는 조치를 시행하였다.⁴⁵⁾ 그리고 673년 비열홀주를 우수주로 옮기는 등 동북방면의 전선을 재조정하였다.⁴⁶⁾ 이는 나당전쟁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예측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672~673년 강원 일대에서 전방위적인 전쟁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병력 확보는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다.⁴⁷⁾ 이때 신라로 내부한 고구려 유민은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심을 받았을 것이고, 신라는 이들을 강원 일대 주요 성곽에 배치하여 방어력 증강에 활

4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3년 2월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 又攻德安城 斬首一千七十級.”

44) 윤성호, 2024, 247~248쪽.

45) 한준수, 2015 ; 韓準洙, 2017.

46) 권창혁, 2019, 307~310쪽.

47) 문무왕대는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된 시기였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이 강구되었다(李文基, 2004, 190~199쪽).

용했다고 추정된다. 673년 겨울 대양성 전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란말갈병은 기본적으로 강원 지역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을 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추가로 강원 일대에 새롭게 조직된 군단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⁴⁸⁾

한성을 포함한 황해도 서남부 지역의 유민들은 임진강을 건너 신라로 들어가는 교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해로를 통해 경기 서부 해안 일대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짐작 볼 수 있다. 고구려 유민들이 황해도 일대의 항구와 포구를 출발해⁴⁹⁾ 해로를 이용하여 신라 영내로 이주하였다면, 신라는 이들을 강화, 인천 등 경기 서부 지역에 안치하였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동자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사료 A-①에서 병선 100척으로 서해를 지키게 하였던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달 국원성 등 8개 성을 쌓아 방어체계를 구축한⁵⁰⁾ 바와 연동하면서, 당 수군이 해로를 통해 신라로 들어온 고구려 유민을 추격할 것에 대비하는 성격을 함께 지녔다고 할 수 있다.

660년 당군 13만 명이 산둥반도의 내주(萊州)를 출발하여 서해를 건너 덕물도에 도착한⁵¹⁾ 이래로, 당이 바다를 통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다. 더욱이 나당전쟁 초기 당 수군은 경기만 북부일대 등 서해에서 활동하였고, 신라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⁵²⁾ 따라서 신라는 서해안 특히 경기만 일대의 군비 강화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며, 이 지역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은 신라군의 전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주목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다면, 673년 9월 당병, 말갈거란병은 신라 영역 내로 들어온 고구려 유민 세력을 추격하며 신라의 변경을 침입하였고, 공략 대상은 경기 서부 해안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에 안치된 유민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신라는 이들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는데, 특히 당병 중 호로하와 왕봉하에 빠져 죽은 자가 많다는 기록은 당병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675년 2월 당군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는데, 말갈병은 바다로 가서 남쪽 경계를 공략하였다.⁵³⁾ 여기서 말갈병은 수군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⁴⁾ 그리고 675년 9월 천성 전투에서

48) 대양성 전투 이후 당군의 추가적인 군사행동이 보이지 않기에, 우수주 일대의 군사조직 강화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이영수, 2023, 240~241쪽).

49) 예컨대 해주 지역은 해양 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동시에 북쪽으로 신원-봉산-평양으로 통하기에 육상교통에서도 요충지라 할 수 있다(徐日範, 2000, 151쪽). 조선 영조대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해주의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남쪽으로 큰 바다와 접하고 북쪽으로 서관(평안도와 황해도)을 공제하니 육지와 바다의 요충지이다(南跨大海 北控西關 陸海之要衝也).” 라고 기술하였다.

5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3년 2월 “築國原城北兄山城召文城耳山城首若州走壤城達含郡主峯城居烈州萬興寺山城敵良州骨爭峴城.”

5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3월, 5월 26일.

52) 이상훈, 2011 ; 이상훈, 2012, 154~176쪽.

53) 『신당서』 권220, 열전145,동이 신라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54) 池內宏, 1930, 114쪽. 구체적으로 말갈 수군이 임진강을 거슬러 우포(牛浦)에 상륙했다고 보

신라는 당의 병선(兵船) 40척을 빼앗았는데, 여기서 당 수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⁵⁵⁾ 이에 비해 673년 9월 기사에서 당 수군이 동원되었다고 불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당병은 호로하와 왕봉하를 도하(渡河)하는 과정에서 빠져 죽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⁵⁶⁾

임진강 이북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대표적인 교통로는 자비령로를 따라 이동하여 적성을 통해 동두천-양주-서울로 이어지는 길이다.⁵⁷⁾ 당군이 이 교통로를 행군하기 위해서는 칠중성과 양주 분지 일대의 신라 성곽을 차례로 점령해야 하였다. 따라서 당군은 신라의 방어체계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경기 서부 해안 지역으로 진군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했을 것이다. 아마도 연천 호로고루 일대를 흐르는 호로하를 건너 파주-고양 방면으로 남하하여 행주 인근에서 한강을 도하하는 경로를 선택한 것 같다.⁵⁸⁾ 고양시 행주동 일대로 비정되는 우왕현(遇王縣)이 왕봉현(王逢縣)으로 불렸기에, 왕봉하는 행주산성 일대의 한강 하류를 가리킨다는⁵⁹⁾ 점에서 방증된다. 당군은 왕봉하를 건너 한강 이남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신라군에 막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호로·왕봉 두 강에서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이해된다.

당군이 크게 패배하였다는 소식은 황해도 일대 고구려 유민들이 재차 거병하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우잠성이 그러하였다. 당군은 673년 겨울 우잠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유민의 항복을 받아내며 임진강 이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였다. 한편 당군은 거란말갈병을 동원해 경기 서부 해안 지역 및 영서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전투 결과, 당군은 대양성과 동자성을 멸(滅)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을 함락하였다는 의미이지만, 우잠성 전투 결과를 ‘항(降)’으로 기록한 것과 비교가 된다. 즉 대양성과 동자성의 고구려 유민은 투항이 아닌 끝까지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결국 패배하였다.⁶⁰⁾

는 견해가 있다(김병희·서영교, 2021, 62~64쪽).

5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9월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城 我將軍文訓等 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당군은 전선을 임진강에서 한강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했다고 이해된다(이상훈, 2012, 213~218쪽).

56) 윤경진, 2017, 258쪽.

57) 서영일, 1999, 249~261쪽.

58) 徐仁漢, 1999, 136쪽 지도에서 당군의 남진 경로를 호로하(마전)-파주-왕봉하(고양)로 표기하고 있다.

59) 鄭求福 外, 1997, 235쪽.

60) 675년 적목성 전투가 참고가 된다. 말갈이 적목성을 공격하자 현령 탈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맞서 싸웠지만, 결국 힘이 다해 모두 죽고 말았다. 이를 말갈이 적목성을 ‘멸(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9월 “靺鞨又圍赤木城 滅之 縣令脫起率百姓拒之 力竭俱死.”

Ⅲ. 674년 나당전쟁의 소강과 고구려 고지의 정세

비록 동자성과 대양성에 안치되었던 고구려 유민은 당군의 공격을 받고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신라 영역 내에는 당의 지배를 수용하지 않는 고구려 유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674년 2월 당 고종은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비난하며 유인계를 계림도행군대총관에 임명하고 신라를 공격하게 하였다.⁶¹⁾ 그런데 계림도행군은 곧바로 파견되지 않았다. 다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C. 낙성공(樂成公)이 동쪽으로 신라를 정벌하니 천거하여 장수로 삼았다. 공(公)에게 조를 내려 지절(持節) 계림도총관(鷄林道總管)으로 삼았으나, 군(軍)이 멈추어 가지 않았다. 사주자사(沙州刺史)에 제수되었으나 이르기 전에 바꾸어 숙주자사에 임명되었다.⁶²⁾

이는 7세기 후반 서역 방면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왕방익(王方翼)⁶³⁾의 신도비 중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낙성공(樂成公) 즉 유인계가 신라를 정벌할 때, 왕방익은 유인계의 추천으로 계림도총관에 제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계림도행군의 출정이 멈추면서, 그는 사주자사에 제수되었고 다시 숙주자사로 가게 되었다. 여기서 674년 2월 이후 당 조정이 모종의 연유로 계림도행군의 출정을 중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⁴⁾ 그리고 675년 2월 전투가 재개되기까지 1년 여 동안 전쟁은 소강기를 맞게 되었다.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구려 고지의 정세부터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674년 안동도호부 치소의 위치이다. 다음 기록은 『자치통감고이(資治通鑑考異)』에서 안동도호부의 이전에 관해 『실록(實錄)』을 인용한 부분이다.

D. 『실록』에서 함형 원년(670) 양방과 고간이 안순(安舜)을 토벌하고 비로소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주(遼東州)로 옮겼다고 한다. 의봉 원년(676) 2월 갑술, 고구려의 남은 무리[高麗餘衆]가 반란을 일으키자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겼다고 한다.⁶⁵⁾

『자치통감고이』에는 670년 양방과 고간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주로 옮겼다는 『실록(實錄)』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책부원귀』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⁶⁶⁾ 또 『신당서』

61) 『책부원귀』 권986, 외신부31, 정토5 ; 『당회요』 권95, 신라.

62) 『全唐文』 권228, 「唐故夏州都督太原王公神道碑」 “樂成公東討新羅 薦爲將師 詔公持節鷄林道總管 軍停不行 授沙州刺史 未至 改拜肅州.”

63) 왕방익은 『당서』에 입전된 인물이다. 왕방익 열전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신현준이진선, 2013 및 柿沼陽平, 2021 참조.

64) 拜根興, 2015, 162쪽.

65) 『자치통감고이』 권10, 당기(唐紀)2, 의봉 원년 2월 “實錄 咸亨元年 楊昉高侃討安舜 始拔安東都護府 自平壤城移於遼東州 儀鳳元年二月甲戌 以高麗餘衆反叛 移安東都護府於遼東城.”

66) 『책부원귀』 권429, 장수부90, 척토 “楊防爲司平太常伯 往安東 安撫高麗餘衆 時有高麗酋長

고려열전에서 양방이 고구려 유민을 안무하였으며 고간이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옮겼다고 한다.⁶⁷⁾ 따라서 동주도행군총관 고간은 설인귀의 뒤를 이어 안동도호에 임명되었고,⁶⁸⁾ 검모잠의 거병으로 평양 일대에서 당의 지배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676년 2월 당은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기는 조치를 다시 시행하였다. 이는 사료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안동도호부가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긴 뒤에 재차 평양성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⁶⁹⁾

669년 설인귀의 신성 이치(移治), 670년 고간에 의한 도호부치(都護府治)의 요동주 이전 등의 사례를 볼 때, 안동도호부는 부흥운동 진압의 군사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⁷⁰⁾ 따라서 안동도호부가 다시 평양으로 이전된 시기의 상한은 고간과 이근행이 지휘하는 당군이 평양에 이르러 8개의 군영을 건설하고 주둔한 672년 8월로 추정할 수 있다.⁷¹⁾ 이후 당군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고간의 행적이 674년부터 확인되지 않기에,⁷²⁾ 672년 8월부터 673년 겨울 사이에 안동도호부는 요동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⁷³⁾ 그렇다면 674년 나당전쟁의 소강기에 안동도호부는 평양성에 있었던 것이다.

고간의 후임으로 안동도호에 임명된 인물을 추정하는데 다음 기록이 참고가 된다.

E. 북정(北庭)에 일이 없으니 세 차례 표문으로 공(功)을 알렸다. 동쪽이 아직 편안하지 않으니 다시 8조의 공적을 쌓도록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안동도호(安東都護)에 배수되었다. 오부(五部)의 변읍(邊邑)을 다스리고 구종(九種)의 유민을 모으니, 열은 별[微暘]이 따뜻하게 비추어 곡식이 자라나고, 큰 파도가 사라져 바다가 고요해졌다.⁷⁴⁾

鈕牟岑 率衆反叛 立高藏外孫安舜爲主 詔左監門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發兵以討之 安舜 遽殺鈕牟岑 走投新羅 防侃始拔安東都護府 自平壤城移於遼東州.”

67) 『신당서』 권220, 열전145,동이 고려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餘 舜殺鈕牟岑走新羅 侃徙都護府治遼東州.”

68) 黃約瑟, 1997, 62쪽 ; 김중복, 2003, 23쪽.

69) 日野開三郎, 1954, 40~41쪽에서 ①670년 요동주로 이전했던 안동도호부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676년 요동으로 옮겨갔을 가능성, ②670년의 이전은 임시 조치였고 676년의 이전은 임시 조치를 공식화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日野開三郎은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었다.

70) 김강훈, 2022, 217쪽.

7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7월 “唐將高侃率兵一萬 李謹行率兵三萬 一時至平壤 作八營留屯.”

72) 674년 1월 유인궤가 계림도대총관에, 이근행과 이필이 부총관에 임명된 사실에 주목하여, 이필이 고간을 대신하여 당병을 통솔하게 되었다고 이해된다(김중복, 2010, 89쪽). 또는 당이 674년 정월 유인궤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신라를 토벌하게 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하였던 행군은 해체하였고 고간은 당으로 귀환했다고 추정한다(여호규·拜根興, 2017, 84쪽).

73) 674년 한반도 북부 지역에 일시적인 평온이 찾아오자, 당이 요동에서 평양으로 안동도호부를 옮겼다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梁炳龍, 1997, 51~52쪽).

74) 「屈突詮墓誌銘」 “北庭無事 既聞三表之功 東隅未康 北佇八條之績 拜銀靑光祿大夫安東都護

사료 E는 당대 무장이었던 굴돌전(屈突詮)의 묘지명 중 일부이다. 그는 고구려-당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⁷⁵⁾ 범양현개국후(范陽縣開國侯)에 봉해지고 하주도독(夏州都督)에 임명되었다. 다음 관력이 안동도호인데, ‘동쪽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 임명 이유였다. 그리고 굴돌전은 안동도호로서 ‘오부(五部)의 변읍(邊邑)을 다스리고 구종(九種)의 유민을 모았다.’ 오부와 구종은 당대 묘지명에서 고구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⁷⁶⁾ 즉 굴돌전은 고구려 고지를 안무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⁷⁷⁾

묘지명의 기록만으로 굴돌전이 안동도호에 재임한 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설인귀의 후임으로 672-673년경 임명되어 674년 모친상을 당하기까지 재임하였다는 견해,⁷⁸⁾ 설인귀가 670년 4월 토번 전선에 투입되자, 그 후임으로 굴돌전이 안동도호에 임명되었고 673년경 고간이 굴돌전의 후임으로 안동도호가 되었다는 견해,⁷⁹⁾ 굴돌전은 고간의 후임이며 재임기간을 673-675년으로 추정하는 견해⁸⁰⁾ 등이 제기되었다. 앞서 설인귀의 뒤를 이어 고간이 안동도호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674년 초 당이 동방에 파견한 행군을 재편성하면서 고간은 귀환하게 되었고, 굴돌전이 새롭게 안동도호로 파견되었다고 파악된다.

674년 초 굴돌전이 안동도호에 임명될 즈음에 안동부도호(安東副都護)를 맡고 있던 □영(□永)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그의 묘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F. 군의 휘는 영(永)이고 자는 룡(隆)이다. … 요(遼)를 정벌하라는 명이 있으니 다시 유격장군(游擊將軍) 좌금오위(左金吾衛) 주양부좌과야(周陽府左果毅)를 배수받았다. 다시 정원장군(定遠將軍) □□위(□□衛) 화지부절충(華池府折衝) 상주국(上柱國) 검교안동부도호(檢校安東副都護)로 옮겼다. 대신으로 나라를 걱정하였고, □□하지 못하고 뜻있는 선비로 명예롭게 목숨을 바치니 마원(馬援)과 같이 강건하였다. 상원 원년(674) 봄 2월 1일 병으로 안동부(安東府)의 관사에서 죽으니 나이가 58세였다.⁸¹⁾

이에 따르면 □영은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였으며, 고구려 멸망 후에는 검교안동부도호에 임명되었다. 그가 안동부도호에 임명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병으로 안동도호부

臨五部之邊邑 輯九種之遺黎 微暘煦而谷春 巨浪銷而海謐.” (吳鋼 主編, 2006, 65-68쪽 ; 권덕영 외, 2015, 117쪽).

75) 李獻奇·周錚, 2002, 58쪽.

76) 권덕영, 2014, 123쪽.

77) 曹凌, 2017, 129쪽.

78) 李獻奇·周錚, 2002, 58쪽.

79) 曹凌, 2017, 129쪽.

80) 辛時代, 2013, 40쪽.

81) 「□永墓誌銘」 “君諱永 字有隆 … □命征遼 還拜游擊將軍 左金吾衛 周陽府左果毅 又遷定遠將軍 □□衛 華池府折衝 上柱國 檢校安東副都護 大臣憂國 □□未□ 志士徇名 馬援當違 以上元元年春二月一日 寢疾薨於安東府之官舍也 春秋五十有八.” (周紹良·趙超 編, 1992, 1589-1590쪽 ; 권덕영 외, 2015, 566쪽).

관사에서 사망하였기에 안동부도호의 직임을 수행하던 중 죽음에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674년 초 안동도호가 고간에서 굴돌전으로 교체되고 안동부도호는 관사에서 사망하면서, 안동도호부의 수뇌부가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안동도호에 임명된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무장 출신으로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은 자들이었고, 굴돌전도 이에 해당한다.⁸²⁾ 그런데 「굴돌전묘지명」에는 안동도호 재임기 군사적 활약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찬자가 묘주의 공적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상투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으로 기술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상세히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674년 나당전쟁이 소강상태였다는 사실과 연결한다면, 서북한 일대 고구려 고지에서 안동도호부 진수군의 군사 활동이 그다지 없었음을 반영한다고 이해된다.

물론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지배층에 대한 압송, 부강자(富强者)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민, 4년여 동안의 부흥운동 등으로 서북한 일대는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소모가 진행되었다. 신라로 도망가지 않고 현지에 남는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당의 지배를 소극적이거나 수용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서북한 일대에서 고구려 유민의 저항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 일대에서 군사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기록을 보면 당군의 공세 및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주춤하게 된 다른 이유가 확인된다.

G. 공의 휘(諱)는 효빈, 자(字)는 순, 성은 육(陸)이며 하남 낙양인이다. … 일찍이 함형 연간에 당군 [王師]이 요(遼)를 정벌하자 공(公)은 참가하였는데 군사(軍事)였다. 벗인 태원 출신 왕수의가 해동(海東)에서 역(疫)에 걸렸다. 길이 험하고 도적들이 가로막으니 병세(兵勢)가 위급하였다. 공이 홀로 위급한 중에도 상(喪)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⁸³⁾

위 사료는 당대 인물인 육효빈(陸孝斌)의 신도비 가운데 일부이다. 그는 당군이 함형 연간에 요(遼)를 공격할 때 참전하였다. 함형 연호는 670년 3월부터 674년 8월까지 사용되었다. 요(遼)는 당대 묘지명에서 고구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⁸⁴⁾ 따라서 육효빈은 670년 4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당군에 소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⁵⁾ 그런데 그의 벗인 왕수의(王守義)가 해동에서 역(疫)에 걸렸다는 표현이 주목된다. 즉 육효빈과 왕수의는 함께 당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던 중, 왕수

82) 程尼娜, 2005, 129쪽 ; 辛時代, 2013, 50쪽.

83) 『전당문』 권228, 「唐故贈齊州司馬陸公神道碑」 “公諱孝斌 字順 姓陸 河南洛陽人也 … 初咸亨中 王師征遼 公參是軍事 友人太原王守義遇疫於海東 路艱寇阻 兵危勢急 公獨顛沛致喪 歸其井邑 … .”

84) 권덕영, 2014, 119~120쪽.

85) 권덕영, 2008, 61-62쪽에서는 침공 시기가 나당전쟁이 치열하였던 670년대 초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벌 대상인 요(遼)를 신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670년대 초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요(遼)는 고구려 고지 내지 고구려 유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의가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던 것이다.

7세기 만주와 한반도에서 전개된 대규모의 전쟁은 전염병의 유행을 야기하였다.⁸⁶⁾ 대규모 인적 자원의 집결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기본 배경이 되었다. 당군은 대백제·고구려전에서 전염병을 경험하였고, 군량 부족에 따른 면역력 저하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군은 부족한 군량 및 의약품을 신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군이 고구려 멸망 후 서북한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할 당시에 기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⁸⁷⁾ 현지에서 군량을 원활히 수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당전쟁으로 신라로부터의 원조도 끊어지게 되었으며, 신라 수군에 의해 보급선이 침몰되기까지 하였다.⁸⁸⁾ 결국 당군은 만성적인 군량 부족에 시달렸다고 추정되며, 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유행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왕수의가 감염된 역(疫)의 구체적인 병명(病名)을 알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전염성과 유행성을 지녔을 것이다. 따라서 당 행군 내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양산되었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더구나 서북한 지역의 기근과 군량의약품 부족은 당 행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서북한 지역 고구려 유민들도 전염병에서 비켜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재지 사회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안동도호부 아래의 기미 지배 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차후 진행될 신라에 대한 공격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따라서 674년 안동도호부는 수뇌부 교체로 인해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전염병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급선무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 조정은 서북한 일대의 전염병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674년 나당전쟁이 소강기를 맞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IV. 보덕국(674~683)의 존망과 신라당 관계

674년 2월 당 고종은 신라에 대해 두 가지 조치를 내렸다. 하나는 유인계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신라를 토벌하게 하였다. 또 하나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당에 머물고 있던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삼아 문무왕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서를 내린 배경에는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과 백제 고지에 취한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사료 H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는 사료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원문을 제시한다.

86) 이현숙, 2003 ; 이정빈, 2021.

87) 신라는 669년 5월 천정군, 비열홀군, 각련군의 백성들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9년 5월). 672년에도 곡식이 귀하여 사람들이 굶주렸다고 한다(『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8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10월 6일.

- H. ① 時新羅王金法敏既納高麗叛亡之衆 又封百濟故地 漸使人守之⁸⁹⁾
 ② 新羅王金法敏既納高句麗叛亡之衆 又封百濟故地 遣兵守之⁹⁰⁾
 ③ 納高麗叛衆 略百濟地守之⁹¹⁾
 ④ 時新羅王金法敏既納高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⁹²⁾
 ⑤ 王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⁹³⁾

사료 H는 당이 두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일단 각 기록에서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H-①(『책부원귀』)과 H-②(『당회요』)가 ‘高(句)麗叛亡之衆’ 이라고 표현한 것을, H-③(『신당서』 신라전), H-④(『자치통감』), H-⑤(『삼국사기』)는 축약하여 ‘高(句)麗叛衆’ 이라고 하였다. 이는 호로하 서쪽 전투 이후 고구려 유민이 잇달아 신라로 도망갔다는 기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 유민을 추격하여 신라 영역 내로 들어간 당군은 신라군의 비호를 받던 고구려 유민의 목격하였지만, 신라군에 패배하면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당이 신라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작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문무왕이 백제 고지에 취한 조치는 ‘又封百濟故地’ 라고 하여 H-①과 H-②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H-③은 이를 ‘略百濟地’ 로, H-④⑤는 ‘又據百濟故地’ 로 기록하고 있다. ‘封’ 이 ‘略/據’ 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封’ 과 ‘略/據’ 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封’ 과 ‘略/據’ 의 주체 내지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로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령하였다’ 고 해석하고 있다.⁹⁴⁾ 7세기 중반 신라는 백제 멸망 및 백제 고지 확보를 전쟁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신라는 백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백제부흥운동 진압에 적극 나선 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당군과의 대결도 회피하지 않았다. 결국 웅진도독부는 백제 고지에서 축출되었고, 673년 신라가 백제 고지에 수비군을 다시 두는⁹⁵⁾ 등 백제 고지에서 신라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 고종은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

89) 『책부원귀』 권986, 외신부31, 정토5.

90) 『당회요』 권95, 신라.

91) 『신당서』 권220, 열전145,동이 신라.

92)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상원 원년 정월 임오.

9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4년 정월.

94) 예를 들어 이병도 역주, 1983, 184쪽에서는 H-⑤를 “왕이 고구려의 반중(叛衆)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고지를 점거하여 관인으로 지키게 하였더니” 로 해석하였다. 정구복 외, 2012, 214쪽에서는 “왕이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고서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니” 로 번역하였다. 한편 권중달 옮김, 2009, 466쪽에서는 H-④를 “신라왕 김법민은 이미 고려의 배반한 무리들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를 지키게 하였다.” 로 해석하였다.

9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初太宗王滅百濟 罷戍兵 至是復置.”

를 제기하며 신라 정벌에 나섰다는 이해는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신라가 백제 고지와 유민을 취했다는 점은 이미 670년 당에 알려져 있었고, 당 고종이 노하여 신라 사신이 당에 억류되는 이유가 되었다.⁹⁶⁾ 그리고 웅진도독부는 672년에 그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런데 새삼스레 674년 2월에 당 고종이 재차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더구나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인’ 것이 673년 윤5월 이후의 일을 반영한 것이라면, 신라가 백제 고지에 실시한 정책도 새롭게 취득한 정보였다고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백제 고지에 두었다’ 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⁹⁷⁾

성서(成書) 시기도 고려 대상이다. 『책부원귀』와 『당회요』가 『신당서』, 『자치통감』, 『삼국사기』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H-③이 H-①·②를 전체적으로 축약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74년 2월 기록 전체로 보자면, 『자치통감』은 『책부원귀』의 기록을 저본으로 하여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개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자치통감』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H-①·②의 서술처럼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백제 고지에 봉(封)하였다’ 는 것이 원래 기록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⁹⁸⁾

논의가 다소 장황하였는데, 정리하면 674년 초 당 고종은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고구려 유민을 백제 고지에 봉(封)하였으며, 군사를 보내 그들을 지키게 하였다’ 는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에 당 고종은 대노하여 유인궤를 보내 신라를 토벌하게 하고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는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유민을 백제 고지에 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봉(封)’ 에 ‘토지를 주어 제후로 삼는다’ 는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며 신라가 고구려 유민에게 백제 토지를 주어 지키게 하였다고 해석한 견해가 주목된다.⁹⁹⁾ 즉 ‘봉(封)’ 을 제후로 삼아 땅을 내어준다는 ‘봉강(封疆)’ 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후로 봉한 대상은 안승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에게 내어준 땅은 금마저로 이해된다. 다만 이를 670년에 이루어진 안승의 고구려왕 책봉이나 안승의 금마저 안치로¹⁰⁰⁾ 보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당 고종이 674년 2월 조서를 내리면서 명분으로 삼은 것은 673년 윤5월 호로하 서쪽 전투 이후에 신라가 고구려 유민에게 시행한 정책이기 때문이

9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정월 “高宗許欽純還國 留囚良圖 終死于圖獄 以王擅取百濟土地遺民 皇帝責怒 再留使者.”

97) 예컨대, H-③을 국사편찬위원회, 1990, 610쪽에서 “[신라에서] 고[구]려의 항거하는 무리들을 받아들여 [옛] 백제 땅을 점령하여 지키게 하였다.” 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20, 135쪽에서 “[신라에서] 고[구]려의 저항하는 무리들을 받아서 [옛] 백제땅을 빼앗아 지키게 하였다.” 로 해석하였다.

98) 『당회요』 중 당 고조~덕종대의 기록은 이미 당대에 정리된 『회요』가 수록된 것이고 『당회요』가 원사료를 모았다는 점에서, 『당회요』의 나당전쟁 기록이 당시 당의 역사서술 태도와 인식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참고가 된다(최진열, 2017, 140~141쪽).

99) 신은이, 2023, 126쪽.

100) 김종복, 2019, 249쪽 ; 신은이, 2023, 126~127쪽.

다.¹⁰¹⁾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는 673년 윤5월 이후 내부한 고구려 유민을 경기 서부 해안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에 안치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는 당군의 침입을 유발하였다. 비록 당군을 격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신라 내 고구려 유민이 나당 간에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치 방식, 안치 지역,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백제 고지에 봉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을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 유민을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지 않고 금마저에 집단적으로 안치하였다.¹⁰²⁾ 666년 연정토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신라로 귀부하자, 왕도주부에 나누어 안치하였다는¹⁰³⁾ 점과 비교된다. 신라가 고구려 유민 세력을 해체하지 않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집단적으로 안치한 배경은 무엇일까?

「답설인귀서」에 따르면 신라는 백제-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가 영유해야 할 영토에 관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가 ‘평양이남(平壤以南) 백제토지(百濟土地)’이다.¹⁰⁴⁾ 이는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와 ‘백제 토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⁰⁵⁾ 신라인들은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약속한 바를 믿고 백제, 고구려 정벌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두 번째는 본래 신라의 영역이었던 지역이다. 예컨대 신라는 비열성을 둘러싸고 당과 갈등을 빚었다. 신라는 비열성이 본래 신라의 영역인데[本是新羅], 고구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다고 주장하며, 당이 이 지역을 안동도호부로 편입시킨 조치에 반발하였다.¹⁰⁶⁾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 즉 황해도 일대는 첫 번째 조건에 따라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고지 전역을 지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때 검모잠이 소형 다식을 보내 한성에서 안승을 왕으로 세웠음을 알리고, 신라의 번병이 되겠다는 맹세를 한 것은 신라인들에게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101) 이는 안승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 집단의 신라 이주 및 금마저 안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된다.

102) 684년 고구려 유민들이 보덕성에서 반란을 일으켜 신라군에 맞서 격렬히 저항한 점이나 686년 보덕성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벽금서당(碧衿誓幢)과 적금서당(赤衿誓幢)을 창설한 바에서, 보덕국 주민들이 금마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6년 12월 “高句麗貴臣淵淨土 以城十二戶七百六十三口 三千五百四十三來投 淨土及從官二十四人 給衣物糧料家舍 安置王都及州府 其八城完 並遣士卒鎮守.”

10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大王報書云 先王貞觀二十二年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非我所貪 玉帛子女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105)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한 여러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윤진석, 2020 참조.

10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又卑列之城 本是新羅 高麗打得三十餘年 新羅還得此城 移配百姓 置官守捉 又取此城 還與高麗 且新羅自平百濟 迄定高麗 盡忠効力 不負國家 未知何罪 一朝遺棄 雖有如此冤枉 終無反叛之心.”

토지에 대한 권한은 그 토지에 거주하는 인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완성된다. 당 고종이 신라가 백제의 토지와 유민을 마음대로 취한다고 힐난한 것이¹⁰⁷⁾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면서,¹⁰⁸⁾ 평양 이남 지역의 고구려 유민 세력이 신라의 영향권 하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서북한 일대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고구려 유민은 신라로 내부하였다. 비록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에 대한 영향력은 상실되었지만, 신라가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의 인민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 유민을 각지에 분산 배치하여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의 인민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신라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장차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를 신라 영역으로 확보하는 명분 중 하나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었다.

또한 신라가 이 지역을 영유하게 된다면, 고구려 유민은 지역 재건을 위해 투입될 첫 번째 대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는 장기간의 전쟁과 대규모 사민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가 황폐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673년 윤5월 이후 신라로 귀부한 고구려 유민은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라에게 명분과 실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존재였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라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보다 집단 안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라가 내부한 고구려 유민에게 취한 조치는 674년 9월 안승을 보덕왕(報德王)으로 책봉한 것이다.¹⁰⁹⁾ 보덕왕의 의미는 신라왕의 덕에 보답하라는 뜻으로, 고구려왕 칭호에 비해 신라에 대한 종속도가 높아졌다고 이해하고 있다.¹¹⁰⁾ 이후 안승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는 안승을 보덕왕으로 칭한다.¹¹¹⁾ 반면 안승은 스스로를 고구려왕이라 하고¹¹²⁾, 『일본서기』에는 ‘고려’가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사절이 682년까지 확인된다. 안승이 보덕왕에 봉해졌지만, 여전히 고(구)려를 나라 이름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¹¹³⁾ 그렇다면 신라는 보덕왕 칭

10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정월 “高宗許欽純還國 留囚良圖 終死于圖獄 以王擅取百濟土地遺民 皇帝責怒 再留使者.”

108) 권창혁, 2021, 186쪽에서 신라가 고구려 유민의 봉기를 지원한 배경은 당의 간섭을 배제하고 평양 이남의 고구려 고지와 유민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

109)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정월 “封安勝爲報德王.”

110) 盧泰敦, 1985, 620쪽 ; 金壽泰, 1994, 349~350쪽 ; 임기환, 2003, 293쪽.

11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0년 3월 “以金銀器及雜綵百段賜報德王安勝 遂以王妹妻之.” ;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13일 “報德王遣使小兄首德皆 賀平逆賊.” ;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 10월)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賜甲第良田.”

11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0년 5월 “高句麗王使大將軍延武等上表曰 … .” 다만 안승은 보덕왕 칭호를 홀시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어지는 상표문에 “ … 每 特別 恩 택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고자 해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每荷殊澤 欲報無階] … ” 라는 문장은 ‘보덕’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3) 정원주, 2019, 74~77쪽.

호를 안승에게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보덕왕 칭호를 신라-고구려 유민 관계에서 해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고구려 유민 문제가 당이 신라를 공격하는 명분이 된 점을 고려하면, 신라-당 관계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할 때 신라가 당과의 관계를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이 토벌의 대상으로 지목한 검모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당과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었으며,¹¹⁴⁾ 안승의 고구려왕 책문에 당 연호를 사용한 것¹¹⁵⁾ 등을 들 수 있다. 즉 신라는 안승을 책봉하고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지만, 나당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를 바라지는 않았고 여전히 당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고 있었다.

보덕왕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의 입장에서 고구려 정벌은 천하 평정의 완성으로 이해되고 있었다.¹¹⁶⁾ 따라서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의 저항은 천하 평정이 완결되지 못한 증표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이 만주한반도 일대에 투입한 행군의 파견 이유로 고구려 유민이 제시되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¹¹⁷⁾ 그렇다면 신라 영역 내 고구려왕은 당의 천하 평정을 부정하는 존재였고, 당이 신라를 공격할 명분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신라는 고구려왕 대신 공식적으로 보덕왕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희석하고자 하였다고 이해된다. 즉 당에게 신라를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했던 것이다.¹¹⁸⁾ 하지만 안승이 신라왕에게 고구려왕을 자칭하고 신라의 관할통제 하에 진행된 외교에서 ‘고려’ 국호를 사용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보덕왕 책봉은 당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일종의 기만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676년 11월 기벌포 전투를 마지막으로 나당전쟁이 종결되면서 당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당은 676년 2월 요동성으로 옮겼던 안동도호부 치소를 다시 677년 2월 신성(新城)으로 옮기고, 동시에 보장왕을 요동주도독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을 안무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당 내지로 사민되었던 고구려 유민을 요동으로 귀환시켰다.¹¹⁹⁾ 일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고구려 유민의 자치가 허용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당은 677년 연남생을 안동도호부로 파견하여 주현의 개편, 조세·역역의 경감, 구휼 실시 등을 추진하게 하였다.¹²⁰⁾ 즉 연남생이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하며 보장왕과 유민 사회를 감시

114) 방용철, 2021.

115) 植田喜兵成智, 2022, 257쪽.

116) 최현화, 2006, 166~168쪽 ; 이기천, 2020, 245~256쪽.

117) 동주도·연산도행군의 파견 이유는 검모잠의 변경 침입 또는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운 것이었다. 설인귀가 계림도행군총관에 임명된 이유는 고구려 유민의 반란이었다 ; 『구당서』 권83, 열전33, 설인귀 “尋而高麗衆相率復叛 詔起仁貴爲鷄林道總管以經略之.”

118) 김중복, 2019, 249쪽.

119)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의봉 2년 2월 “以工部尙書高藏爲遼東州都督 封朝鮮王 遣歸遼東 安輯高麗餘衆 高麗先在諸州者 皆遣與藏俱歸 …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

120) 『신당서』 권110, 열전35, 제이번장 천남생 “儀鳳二年 詔安撫遼東 并置州縣 招流冗 平斂賦

통제하였던 것이다.¹²¹⁾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배경은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 신라 정벌의 전진기지로 만드려는 데 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¹²²⁾ 하지만 이러한 당의 지배정책은 곧장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고구려 고지의 정세는 계속 불안정하였다고 여겨진다.

I. 군(君)의 휘(諱)는 자양(子陽)이고 자(字)는 명원(明遠)이다. 하동 해인(解人)이다. … 남중(南中)에서 거듭 청하니 하늘의 뜻을 글에 실어 조산대부(朝散大夫) 요부(姚府) 장사(長史)를 제수하였다. … 요(遼)가 일찍이 평정되었으나 유민들이 아직 거세었다. 공을 세움이 특별하고 실로 어짐을 지니고 있으니 안동도호부 장사에 제수되었다. 영명한 모략과 비결로 세상을 구제하니 삼한이 교화를 우러르고 구종(九種)이 인자함에 귀의하였다. 때마침 풍진(風疹)에 거듭 걸리니 병으로 휴양하고자 생각하였다. 표를 올려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니 은혜로운 조서로 허락하였다. 이미 하늘과 땅의 이치가 어그러지고 되갚고자 우리를 속이니, 병으로 드러누워 오랫동안 낫지 않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프게도 꿈을 꿀 뿐이었다. 나이 62세에 영릉 2년(681) 8월 15일 유주(幽州) 계현(薊縣)의 여관에서 돌아가셨다.¹²³⁾

이는 당 관인 유자양(柳子陽)의 묘지명 중 일부이다. 그는 익부(益府) 호조참군(戶曹參軍)을 시작으로 노주(潞州) 상당현(上黨縣) 등 세 지역의 현령과 충주(忠州) 장사(長史), 요부(姚府) 장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안동도호부 장사를 역임하였다.

그가 안동도호부 장사에 재임한 시기를 추정하는데 그의 처 황보씨(皇甫氏)의 묘지명이 참고가 된다.¹²⁴⁾ 그녀는 의봉 2년(677) 8월 8일 장안 만년현에 있는 사제(私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음해인 의봉 3년(678) 5월 17일 장사되었다. 그런데 묘지명의 수제(首題)에 그녀의 남편인 유자양의 관직을 요주도독부(姚州都督府) 장사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678년 전반기 유자양은 현 운남성 요안현(姚安縣)에 두어졌던 요주도독부 장사에 있었으며, 빠르면 678년 후반에 안동도호부 장사에 제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안동도호부 장사로 재임 중 풍진(風疹)에 걸려 치료를 위해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영릉(永隆) 2년(681) 8월 15일 62세의 나이로 유주(幽州) 계현(薊縣)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를 종합하면, 유자양은 최대 678년 후반~681년 전반 안동도호부 장사에 재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罷力役 民悅其寬.” ; 「천남생묘지명」 “儀鳳二年 奉勅存撫遼東 改置州縣 求瘼卹隱 襁負如歸 劃野 疎疆 奠川知正.”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고구려·백제·낙랑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95쪽).

121) 盧泰敦, 1981, 83쪽 ; 김종복, 2003, 31쪽 ; 여호규·拜根興, 2017, 86쪽.

122) 盧泰敦, 1981, 82쪽 ; 古畑徹, 1983, 14~18쪽 ; 김종복, 2003, 28~29쪽 ; 여호규·拜根興, 2017, 85쪽.

123) 「柳子陽墓誌銘」 “君諱子陽 字明遠 河東解人也 … 南中固請 載簡天心 授朝散大夫 姚府長史 … 遼服初平 遺賫尚梗 式遏之寄 實佇賢良 除安東都護府長史 英略濟時 深機拯物 三韓仰化 九種歸仁 屬風疹累侵 思閑養疾 表請致仕 恩詔許焉 既而乾坤反德 報復我欺 寢疾弥留 俄夢夢已 春秋六十二 以永隆二年八月十五日 薨於幽州薊縣之行舍.” (胡戟·榮新江, 2012, 244~245쪽).

124) 「柳子陽故妻皇甫氏墓誌銘并序」 “大唐前朝散大夫守姚州都督府長史輕車都尉壽陵縣開國侯柳子陽故妻皇甫氏墓誌銘并序 … 儀鳳二年六月遘疾 八月八日卒於萬年縣崇義里之私第 時年五十七 粵三年五月十七日 葬于雍州明堂縣洪原鄉少陵原.” (胡戟·榮新江, 2012, 212~213쪽).

유자양의 묘지명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안동도호부 장사에 임명된 이유이다. 요(遼) 즉 고구려를 평정하였지만 여전히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묘주가 파견되었다고 한다.¹²⁵⁾ 이는 당의 입장에서 678년 후반에 여전히 요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하였으며 당의 지배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 신라를 재공격하려는 당의 의도가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이다.¹²⁶⁾

요동으로 돌아온 보장왕이 말갈과 연대하여 고구려의 부흥을 꾀하다가 발각되면서 요동 지역의 정세는 더욱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당은 보장왕을 소환하였고 고구려 유민 중 빈약자(貧弱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재차 당 내지로 사민하면서 저항의 원천을 제거하고자 하였다.¹²⁷⁾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보장왕이 개요(開耀) 원년(681) 공주(邳州)로 소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¹²⁸⁾ 개요 원년은 여기서만 확인된다. 나당전쟁 이후 신라가 요동 지역의 정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라가 요동 지역의 정세를 민감하게 탐지하였음을 시사한다.¹²⁹⁾

680년 3월 문무왕은 안승을 신라 왕실 여성과 혼인하게 하였다.¹³⁰⁾ 안승의 보덕왕 책봉에 이어서, 보덕국이 신라에 더욱 종속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¹³¹⁾ 다만 혼인정책이 복속뿐만 아니라 화친, 동맹, 원조 등 다양한 목적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른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676년 이후 당은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 신라를 다시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좀처럼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이어졌다. 보장왕이 부흥운동을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요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하면 당군이 요동 지역을 중간 거점으로 하여 한반도로 진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신라 측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요동 지역의 혼란상이 보덕국 주민을 자극하거나 당군의 파견을 이끌어내는 요

125) 묘지명에서 당의 지배 체제에 맞서는 고구려 유민의 양상을 ‘상경(尙梗)’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669년 양주로 순행하려는 당 고종을 만류하면서 내공민이 고구려 고지의 정세를 설명하는데 등장하는 표현인 ‘부여상경(扶餘尙梗)’과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

126) 678년 9월 당 조정에서는 신라 정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 고종은 군사를 내어 신라를 토벌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장문관이 토번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하며 신라 정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의봉 3년 9월). 이를 바탕으로 당시 당이 동방의 신라보다 서방의 토번을 중시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다만 「유자양묘지명」을 통해 당이 신라 정벌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배경으로 요동 지역의 불안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127) 『구당서』 권199, 열전149,동이 고려 “王至遼東謀叛 潛與靺鞨通 事覺 召還 配流邳州 并分徙其人 散向河南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

128)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개요 원년 “王至遼東 謀叛 潛與靺鞨通 開耀元年 召還邳州.”

129) 김강훈, 2022, 283~284쪽.

13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0년 3월 “以金銀器及雜綵百段賜報德王安勝 遂以王妹妻之.”

131) 盧壽敦, 1985, 620쪽 ; 金壽泰, 1994, 350쪽. 植田喜兵成智은 안승이 문무왕에게 보낸 상표문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신라왕과 안승의 명분적 상하관계가 더욱 명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植田喜兵成智, 2022, 260~261쪽).

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신라는 요동 지역의 동향에 주의하면서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보덕국을 신라 체제 내로 흡수하는 동시에 고구려 유민을 회유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승의 혼인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³²⁾

신라가 보덕국을 통합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소국 통합의 경험이 집약되어 있었다.¹³³⁾ 하지만 신라가 당율(唐律)을 토대로 한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며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는¹³⁴⁾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이 내부한 이민족을 대상으로 제정한 각종 규정을 신라가 수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중 부세 규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J-①. 사이(四夷)의 항호(降戶)는 관향에 부적(附籍)하고 10년을 급복(給復)한다.¹³⁵⁾

J-②. 무릇 내부한 후 낳은 자식은 곧 백성과 동일하므로 번호(蕃胡)가 될 수 없다.¹³⁶⁾

당의 영역 밖에 존재하던 이민족이 당 내지로 귀부하면 화외인(化外人)에서 화내인(化內人)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당 황제의 지배를 받는 백성(百姓)이 된 것으로, 율령에서 부과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세 납부였다. 사이항호(四夷降戶)를 관향에 안치하고 호적에 편성하는 조치는 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민족이 당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0년 동안 부세를 면제하는¹³⁷⁾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J-①).¹³⁸⁾ 한편 이민족이 내부한 후에 태어난 자식은 번호(蕃胡)가 아닌 당 백성으로 간주되었다(J-②). 즉 당은 이주 1세대에 한하여 10년간 부세를 면제했던 것이다.¹³⁹⁾

일본도 당의 율령을 받아들이며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681년 8월 일본에서는 고구려·백제 유민에 대한 10년간의 부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대신 부모와 함께 이주한 자손에 대한 면세 혜택은 종신토록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¹⁴⁰⁾ 이는 유민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시에 유민의 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시행된 정책이었다.¹⁴¹⁾

보덕국 주민에 대한 부세 수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료에 직접 드러나는 바가 없다. 보덕국이 형식적이거나 독립국의 면모를 지녔다는 점, 신라가 당의 제도 수용에 적극적이었

132) 김강훈, 2022, 282~284쪽.

133) 村上四男, 1966, 70쪽 ; 하일식, 2006, 270쪽.

134) 한준수, 2012 ; 김덕원, 2020 ; 박수정, 2021. 신라는 나당전쟁 기간에도 당을 제도 정비의 모범으로 인식하고 당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한준수, 2022, 109~110쪽).

135) 『신당서』 권51, 지41, 식화1 “四夷降戶 附以寬鄉 給復十年.”

136) 『당육전』 권3, 상서호부 “凡內附後所生子 卽同百姓 不得爲蕃戶也.”

137) 급복(給復)은 일정 기간 조세·부역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다(全海宗, 1972, 5쪽).

138) 당에서 J-①을 비롯하여 내부한 이민족을 대상으로 한 부세 규정에 관해서는 石見清裕, 1998 ; 李基天, 2019, 79~93쪽 참조.

139) 金秀鎭, 2017, 144쪽.

140)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10년 8월 병자 “詔三韓諸人曰 先日復十年調稅既訖 且加以歸化 初年俱來之子孫 竝課役悉免焉.” ; 박윤선, 2012, 98~99쪽 ; 金秀鎭, 2017, 146쪽.

141) 김영심, 2022, 322~324쪽.

다는 점,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당과 동일한 제도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라에서도 내부한 고구려 유민에게 부세 면제 혜택을 주었다고 이해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더욱이 당과 일본에서 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규정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보덕국 주민들이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669년 당 내지로 대규모 사민이 이루어질 때, 당은 고구려 유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상기 규정을 널리 알렸을 것이다. 그리고 보덕국의 대일 외교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고구려 유민의 처지에 대한 정보도 계속 수집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보덕국 주민들이 당·일본으로 귀부한 고구려 유민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신라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을 것이다.¹⁴²⁾

보덕국의 고구려 유민은 여러 면에서 신라에서 효용성이 있는 존재였다. 그렇기에 당과 대립하는 요인이 됨에도 보덕국은 성립·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집권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중대 왕실이 형식적이거나 독립국의 면모를 지닌 보덕국을 계속 용납하기는 쉽지 않았다.¹⁴³⁾ 하지만 신라가 책봉한 보덕왕과 그로 성립된 보덕국을 신라가 부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¹⁴⁴⁾ 따라서 신라는 보덕국을 해체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였다.

여기서 J-①의 규정이 활용되지 않았을까 한다. 당과 일본에서는 내부한 이민족에게 10년 동안 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들은 더 이상 이민족이 아닌 황제나 천황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안승은 674년 9월 보덕왕에 책봉되고, 683년 10월 신라 관등과 김씨 성을 사여받고 왕경으로 이거하게 되었다.¹⁴⁵⁾ 보덕왕에 책봉된지 10년째 되는 해에 그는 진골 신분에 편입되어 신라왕의 신하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J-①의 규정이 안승을 고구려 유민에서 신라인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듬해 금마저의 고구려 유민들은 반란을 일으켰다.¹⁴⁶⁾ 반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덕국의 해체였다.¹⁴⁷⁾ 비록 외양 뿐이기는 했으나 고구려 유민들이 집단 거주하며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고유한 삶을 지켜나가던 공간이¹⁴⁸⁾ 해체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반란이라는 극단적 행위가 표출되는 데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요인도 필

142) 물론 보덕국 자체에서 부세 수취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컨대 보덕국은 독자 무력 기반을 지니고 있었기에, 본래 고구려 규정에 의거하여 군역 부담이 지워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143) 한준수, 2018, 168쪽.

144) 植田喜兵成智, 2022, 262쪽.

14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 10월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146)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 10월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147) 정선여, 2013, 41쪽.

148) 한준수, 2023, 16-17쪽.

수적이다.

여기서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금마저에 존재했던 관리의 존재가 주목된다. 대문(大文)은 반란을 피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는데, 고구려 유민들은 이를 목격하고 관리를 죽이며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서 관리는 대문의 반란 시도를 저지하고 형벌을 집행하던 자로 신라 조정에서 파견된 인물일 것이다. 안승이 신라 왕경으로 이거하면서 보덕국의 관등, 관직을 소지한 인물들도 함께 왕경으로 옮겨가 신라 관등, 관직을 받았을 것이다. 그 빈자리는 신라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대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금마저는 고구려 출신의 관인이 아니라 신라 관인의 행정력이 발휘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고구려 유민의 신라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¹⁴⁹⁾ 그동안 누렸던 면세 혜택이 사라지고 부세 수취와 역역 징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백제 고지는 오랜 전쟁으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은 백제 고지에서 경제적으로 생존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¹⁵⁰⁾ 현재 익산 지역은 비옥한 평야 지대이지만, 1920년대 만경강 제방을 축조하기 이전에는 현재 왕궁리 일대까지 해수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¹⁵¹⁾ 익산 지역의 백제 사비기 유적 대부분이 해발 20m 이상의 구릉 말단부에 분포하는¹⁵²⁾ 것도 고대 시기 금마저 일대가 밀물에 의한 범람이나 홍수에 취약하였음을 말해준다. 고구려 유민들은 농업 생산 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금마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부세 면세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곤궁한 입장만 처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는 반란을 일으키는 현실적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 유민은 보덕성(報德城)을 장악하고 신라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으며 가잠성 인근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신라는 중앙군인 황금서당을 동원하며 진압에 나섰고, 결국 보덕성을 함락하였다. 신라는 살아남은 자들을 국남주군(國南州郡)으로 사민하고 익산 지역을 금마군으로 재편하였다.¹⁵³⁾ 이로써 신라로 이주하여 생존을 도모하였던 고구려 유민들의 반독립적인 공간은 사라지고, 고구려 유민은 신라 체제 내로 편입되었다.

V. 맺음말

673년 윤5월 고구려 부흥군은 호로하(瓠瀟河) 서쪽에서 당군에게 크게 패하였고, 근거지를 상실한 고구려 유민은 신라로 이주하였다. 황해도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은 육해로를 통해 영서 지역 및 경기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신라는 이들을 대양성, 동자성 등에

149) 한준수, 2018, 168쪽.

150) 한준수, 2023, 18~25쪽.

151) 익산시, 2009, 24쪽.

152) 홍보식, 2020.

153)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 11월 ; 『삼국사기』 권47, 열전7, 취도·김영운.

배치하여 군사적으로 활용하였다. 당군은 임진강(호로하)-파주-고양-한강 하류(왕봉하) 방면으로 고구려 유민을 추격하였으나, 신라군은 이들을 격퇴하였다. 당군이 크게 패배하였다는 소식은 황해도 일대 고구려 유민들이 재차 거병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당군은 고구려 유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고, 673년 겨울 우잠성, 대양성, 동자성의 고구려 유민은 당군에 패배하였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 유민을 지금의 익산 지역인 금마저 일대로 집단 안치하였다.

당은 674년 2월 유인케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여 신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군사활동은 675년 2월에서야 확인된다. 674년은 나당전쟁의 소강기였던 것이다. 당시 안동도호부는 요동성에서 평양성으로 다시 옮겨져 있었다. 674년 2월 안동도호는 고간에서 굴돌전으로 교체되었는데,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안동부도호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안동도호부의 수뇌부가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육효빈신도비」에 따르면 670~673년 서북한 일대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쟁으로 대규모 인적 자원이 집결하고 지속적인 기근, 군량의약품의 부족 현상은 당군 내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구려 유민 사회도 전염병을 비껴갈 수 없었다. 이는 674년에 나당전쟁이 소강기를 맞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674년 2월 당이 신라를 정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백제 고지에 봉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하는 고구려 유민 집단을 금마저에 집단 배치한 것이 당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674년 9월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 당은 고구려 정벌을 천하 평정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안승을 보덕왕에 책봉함으로써 고구려 유민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희석시켜 당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은 677년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 정책을 전환하며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 신라 정벌의 전진기지로 만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자양묘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 유민의 저항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보장왕은 말갈과 연대하며 부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라는 요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안승과 신라 왕실 여성의 혼인을 추진하여, 고구려 유민을 회유하는 동시에 신라 체제 내로 흡수하고자 하였다.

보덕국은 신라왕에게 효용성이 있는 존재이기는 하였지만, 집권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중대 왕실이 자치적인 면모를 지닌 보덕국을 계속 용납하기는 어려웠다. 신라는 보덕국의 해체할 명분으로 10년간 부세 면제 규정을 활용하였다. 신라는 당 율령에서 내부한 이민족에게 10년 동안 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받아들여 보덕국 주민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신라로 내부한 지 10년이 지난 고구려 유민은 이제 완전한 신라민으로 전환되어야 하였다. 이에 683년 안승은 신라 관등과 김씨 성을 사여 받고 경주로 이거하게 되었다. 이듬해 금마저의 고구려 유민이 반란을 일으킨 배경에는 보덕국 해체에 따른 심리적 상실감과 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며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이 자리잡고 있었다.

투고일: 2024.10.29,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 권덕영, 2014,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研究』75.
- 권덕영 외,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권창혁, 2019,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韓國古代史研究』95.
- 권창혁, 2021,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51.
- 김강훈, 2017, 「고구려 멸망 이후 扶餘城 圈域의 부흥운동」, 『大丘史學』127.
- 김강훈, 2022,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 김영심, 2022,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 김덕원, 2020, 「신라 중대 초 당제의 수용과 정비」, 『신라사학보』49.
- 金秀鎭, 2017,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 2020, 「670년 평양 일대 고구려 유민의 남하와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실학』72.
- 金壽泰, 1994, 「統一期 新羅의 高句麗遺民支配」,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 김병희, 2021,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희·서영교, 2021, 「羅唐戰爭期 七重城과 買肖城 戰鬪」, 『軍史』118.
- 김종복, 2003, 「高句麗 멸망 이후 唐의 지배 정책-安東都護府를 중심으로-」, 『史林』19.
- 김종복, 2010,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78.
- 김종복, 2019,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127.
-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 - 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 『韓祐 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 盧泰敦, 1985, 「對渤海 日本國書에 云謂한 ‘高麗舊記’에 대하여」,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 盧泰敦, 1997,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史』34.
- 朴省炫, 2002, 「6~8세기 新羅 漢州 「郡縣城」과 그 성격」, 『韓國史論』47.
- 박수정, 2021, 「7세기 전반 신라의 당 제도 수용과 그 의미」, 『新羅史學報』52.
- 박운선, 2012, 「도일 백제유민의 정체성 변화 고찰」, 『역사와 현실』83.
- 방용철, 2018, 「고구려 부흥전쟁의 발발과 그 성격」, 『대구사학』133.
- 방용철, 2021, 「文武왕의 安勝 책봉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63.
- 拜根興, 2015, 『石刻墓誌與唐代東亞交流研究』, 科學出版社.
- 서영교, 2006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 서영교, 2006, 「羅唐戰爭期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42.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徐日範, 2000, 「北韓地域 高句麗山城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徐仁漢, 1999,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 신은이, 2023, 「羅唐戰爭의 전개와 報德國」, 『嶺南學』84.

- 신현준·이진선, 2013, 「《舊唐書》·《新唐書》王方翼傳 譯註」, 『新羅史學報』28.
- 梁炳龍, 1997,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 『史叢』46.
- 여호규·拜根興, 2017,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69.
- 여호규, 2022,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2권(연천의 역사), 연천군지편찬위원회.
- 윤경진, 2017,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軍史』104.
- 윤성호, 2024, 「나당전쟁기 칠중성 전투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61.
- 윤진석, 2020,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34.
- 이규호, 2016, 「당의 고구려 유민 정책과 유민들의 동향」, 『역사와 현실』101.
- 李基天, 2019, 「唐 前期 境內 異民族 支配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천, 2020, 「당의 입장에서 본 신라의 통일」, 『역사비평』130.
- 李文基, 2004, 「新羅 文武王代의 軍事政策에 대하여」, 『歷史教育論集』32.
- 이미경, 2015,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120.
- 이민수, 2019,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 계획」, 『한국고대사탐구』33.
- 이상훈, 2011,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신라문화』37.
- 이상훈, 2012,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 이영수, 2023,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110.
- 이정빈, 2009,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72.
- 이정빈, 2021, 「고구려-수 전쟁과 전염병」, 『韓國古代史研究』102.
- 이현숙, 2023, 「7세기 신라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47.
- 익산시, 2009, 『익산고도보존계획』.
- 임기환, 2024, 「고구려 부흥운동 자료의 재검토」, 『한국사학보』94.
- 임용한, 2013, 「대당전쟁 시기 주요 격전지 연구」,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회의 자료집.
- 全海宗, 1972, 「歸化에 대한 小考-東洋古代史에 있어서의 그 意義-」, 『白山學報』13.
- 鄭求福 外, 1997, 『譯註 三國史記』4-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정선여, 2010,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56.
- 정선여, 2013, 「新羅 神文王代 報德國民의 반란」, 『역사와 담론』66.
- 정원주, 2019, 「안승(安勝)의 향방(向方)과 고구려 부흥운동」, 『軍史』110.
- 曹凌, 2017, 「고구려의 멸망에서 나당전쟁 발발로」, 『中國古中世史研究』44.
- 曹凌, 2019, 「당-신라전쟁사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법중, 2012, 「백제 복속 후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신라의 정책」, 『백제학보』7.
- 존·씨·재미슨, 1969, 「羅唐同盟의 瓦解-韓中記事 取舍의 比較-」, 『歷史學報』44.
- 최진열, 2017, 「당 전·후기 나당전쟁 서술과 인식」, 『동북아역사논총』56.
- 최현화, 2006, 「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사와 현실』61.

-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고구려·백제·낙랑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한준수, 2012, 『신라중대 올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 한준수, 2015,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78.
- 韓準洙, 2017, 「신라 통일기 闕衿幢·二闕幢의 설치와 확대」, 『한국학논총』, 2017.
- 한준수, 2018, 「신라 통일기 三武幢의 설치와 麗濟 유민」, 『한국고대사탐구』30.
- 한준수, 2022, 「신라 신문왕대 달구벌 移都의 추진과 兩京制」, 『北岳史論』15.
- 한준수, 2023, 「7세기 후반 신라의 지배질서 정비와 여제 유민의 대응」, 『한국사연구』201.
- 홍보식, 2020, 「익산 왕궁·금마지역의 백제 사비기 유적 입지와 토지 활용 양상」, 『중앙고고연구』32.
- 辛時代, 2013, 「唐代安東都護府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吳鋼 主編, 2006, 『全唐文補遺(千唐志齋新藏專輯)』, 三秦出版社.
- 李獻奇·周錚, 2002, 「武周屈突詮墓誌考釋」, 『中原文物』2002-3.
- 程尼娜, 2005, 「唐代安東都護府研究」, 『社會科學輯刊』2005-6.
- 胡戟·榮新江, 2012, 『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 北京大學出版社.
- 黃約瑟, 1997,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中華書局.
- 古畑徹, 1983,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107.
- 石見清裕,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 柿沼陽平, 2021, 「王方翼攷—『舊唐書』卷185 良吏王方翼列傳譯注を中心として」, 『帝京大学文化財研究所研究報告』20.
- 植田喜兵成智, 2022,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 日野開三郎, 1954, 「小高句麗國の研究(1)」, 『史淵』63.
- 井上直樹, 2016, 「高句麗遺民と新羅—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東洋史研究』75-1.
- 池内宏, 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2.
- 津田左右吉, 1913, 「唐羅交戰地理考」, 『朝鮮歴史地理』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村上四男, 1966,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37·38.

【Abstract】

Relations between refugees of Goguryeo and Tang · Silla in the 670s

Kim, Kang-hun
(Sadong Middle School)

The Army for Revival of Goguryeo suffered a major defeat by Tang armies on the west of Horoha river in May 673. Accordingly, refugees of Goguryeo migrated to Silla by land and sea. Silla deployed them in Yeongseo area and western Kyeong-gi Province and utilized them militarily.

Tang armies fighting the army for Revival of Goguryeo were damaged by the epidemic. And in early 674, the head of Andong Protectorate was temporarily absent. These were the backgrounds that the Tang-Silla War enters a temporary lull in 674.

Refugees of Goguryeo was settled in Geummajeo. Tang used this as an excuse to attack Silla. Silla appointed Anseung as King Bodeok and married him to a woman of the Silla royal family. This was a consideration of Silla-Dang relations.

In the end, the Bodeokguk was dismantled for a highly centralized system of Silla's government. As tax exemption for a period of ten years ended, refugees of Goguryeo had to become Silla people. Refugees of Goguryeo in Geummajeo revolted in 684 due to psychological loss and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resulting from the end of tax exemption.

Keywords : Refugees of Goguryeo, Old Territory of Goguryeo, Silla-Tang War,
Anseung, Bodeokguk